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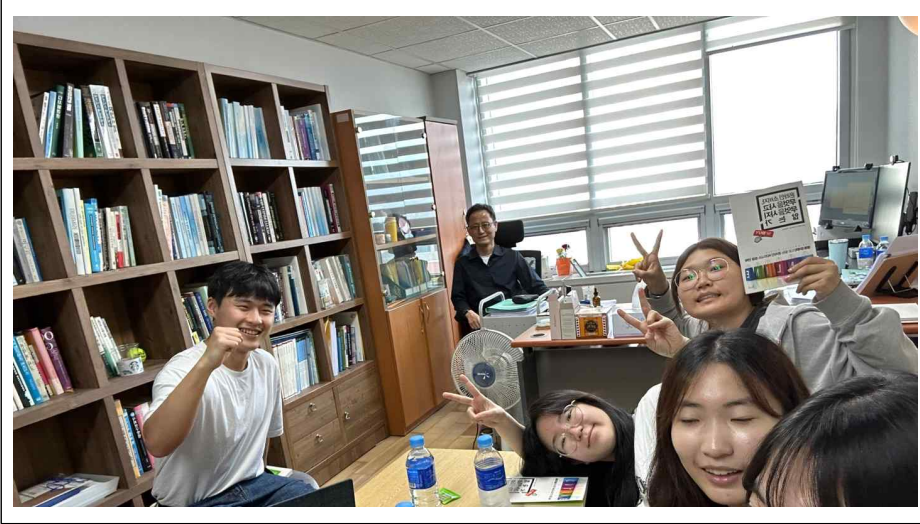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상찌와 꼬꼬꾸꾸 성냥이

1주차	일시	4월 3일 16 : 30 (학술정보관 그룹 스터디실 3F-2)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효진 2431076	0
		박서원 2431141	0
		송아민 2431003	0
김광빈 2471399		0	
진도	도서명: 비상식적 성공법칙	진도페이지:	1 장 ~ 4장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광빈,박서원,송아민,정효진 이동주교수님]</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내용 작성</p> <p>정효진: “책의 구성은 독자가 책에서 서술하는 내용을 직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앞부분의 절에서 성공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는 율킨이, 저자에 말해 의아함을 가졌다. 성공의 의미는 각자 다른 것인데 과연 명예,부 만이 성공일까라고 의문을 제시하였다.</p> <p>박서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돈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였으며 관심이 있는 분야의 기업의 전략들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좋았다.</p> <p>송아민: 성공을하기 위한 몇가지 규칙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예를들어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일 먼저 찾기, 나만의 수식어 붙이기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나에게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김광빈: 책에서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며 노력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다.</p>		

	일시	5월 1일 16 : 30 (학술정보관 그룹 스터디실 3F-2)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효진 2431076	O
		박서원 2431141	O
		송아민 2431003	O
		김광빈 2471399	O
	진도	도서명: 비상식적 성공 법칙	진도페이지: 5 장 ~ 8 장
2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730 1151 1251 1187">[좌측부터 박서원, 김광빈, 정효진, 송아민]</p> <p data-bbox="491 1236 960 1272">※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 data-bbox="491 1279 665 1314">토론내용 작성</p> <p data-bbox="491 1364 1492 1485">정효진: 점점 책을 읽어 갈수록 저자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기재된 방법은 단순히 부의 증진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p> <p data-bbox="491 1491 1492 1612">박서원: 개인의 성장과 인생에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 역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각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유해보았다.</p> <p data-bbox="491 1619 1492 1740">송아민: 책에서 자신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성공하고 망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망한다고 한다. 이부분을 읽으며 '말하는대로'라는 말이 떠올랐고 책을 읽은 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봤다.</p> <p data-bbox="491 1747 1492 1868">김광빈: 이 책은 다른 자기개발 서적과 달리 책을 읽는 사람에게 행동을 자꾸 유도해왔다. 그 책에 이끌려 실제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실천해보면서 느낀 점 및 각자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으며 공감하고 즐겼다.</p>	

	일시	5월 8일 16 : 30 (이동주교수님 연구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효진 2431076	○
		박서원 2431141	○
		송아민 2431003	○
		김광빈 2471399	○
진도	도서명: 온라인소비자,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는가	진도페이지: 1 장 ~ 3 장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광빈, 이동주교수님, 정효진, 송아민, 박서원]</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p> <p>정효진: 현재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시장의 형태보단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에게 정보가 많은 것은 목이 마른사람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틀어주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인상깊었다.</p> <p>박서원: 소비자는 생각보다 웹사이트나 온라인상에서 시각적 호감도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며 시각적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며 역시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시각적 이미지의 배치도 중요함을 느꼈다.</p> <p>송아민: 점점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에서 배치도 중요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책에서 다루면서 화면상에서 사람들이 가장먼저보는 곳이 모두 비슷하다는 점이 놀라웠다.</p> <p>김광빈: 이 책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설문을 하는 것이 조금은 대충 응답하여 결과물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상황에 맞는 온라인 설문 전략과 오프라인 설문 전략을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p>	

3주차	일시	6월 4일 16 : 30 (이동주교수님 연구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효진 2431076	○
		박서원 2431141	○
		송아민 2431003	○
		김광빈 2471399	○
진도	도서명: 온라인소비자,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는가	진도페이지: 4 장 ~ 6 장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광빈, 정효진, 송아민, 박서원]</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p> <p>정효진: 마케팅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폰트와 중요정보 배치구도 등을 인상 깊게 봤다. 특히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에서 예시로 든 엑스레이 사진속 우측 상단의 고릴라를 찾지 못한 것을 좋아한다.</p> <p>박서원: 생각보다 시각적 자료가 더욱 중요했으며 ‘폰트’에 대해서도 읽기 힘든 폰트가 오히려 더욱 주의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건 적당한게 좋다. 폰트 역시 너무 읽기 힘들면 부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p> <p>송아민: 피드백은 거꾸로된 U자 형태를 띄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나 역시도 많은 사람이 칭고하는 거 보다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p> <p>김광빈:때로는 많은 피드백이 결과물을 अच्छ게 만든다는 말에 크게 공감이 갔다. snp500 지수추종 etf를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지수의 등락을 보며 매매하는 사람과의 격차가 크다고 나온 점에서도 되게 흥미롭게 느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정효진 2431076	<p>원래 책을 잘 읽는 편이 아닌데 비교과도 열고 친구들과 활동도 할겸 신청한 독서클럽은 몇주만에 저의 독서량을 늘려주었고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속에서 다양한 시각을 얻었고 교수님과 직접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p>
	2	박서원 2431141	<p>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다같이 읽은 책들로 목표에 좀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았고 책을 읽고 각자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혼자 말하거나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p> <p>이번 독서클럽을 계기로 더 나은 독서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p>
	3	송아민 (2431003)	<p>대학교 입학 전 독서모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독서클럽을 통해 독서모임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니 내 시선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 읽었다면 금방 포기하였을텐데 모임으로 하니 동기부여도 되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거 같다.</p>
	4	김광빈 2471399	<p>독서클럽을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 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독서클럽 활동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왜 사람들이 책을 읽는지 왜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지 이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독서와 토론이 조금은 더 친숙해진 거 같다.</p>
	5	성명 (학번)	